새 로 나 온 책

이 난은 매월 발간되는 새책 소식을 독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불황의 출판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습니다.

미술본색

'우리 미술계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한국 미술계에 덧씌워진 고상한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 본색을 드러내고자 한다. 일그러진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사회' 로서의 '미술계' 는 단지 '미술계' 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술' 의 본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윤범모 지음 / 도서출판 개마고원 발행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있다'

무용평론가 김영태 선생이 말하는 21인의 무용가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단순한 무용가들의 소개의 내용이 아닌 30여 년 동안 그들의 춤을 보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본 깊이 있는 '무용가론' 이다.

김영태 지음 / 일광문화사 발행

연극 만들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서' 는 기본 욕구 충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를 어떻게 표현하고 연극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해 길안내를 해주는 책이다. 읽고 배우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책이다.

김혁수 지음 / 도서출판 금병의숙 발행

고흐가 되어 고흐의 길을 가다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서양미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 글쓴이의 음성이 아닌 고흐의 음성으로 써 내려간 이번 책은 고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혀 다른 형식의 책으로, 지은이가 직접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답사하여 추적했다고 한다.

노무라 아쓰시 지음 / 김소운 옮김 / 마주한 · 시와시학사 발행

바그너 오딧세이

이 책은 바그너에 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제1부 '생애' 와 제2부 '작품' 으로 나뉘어 바그너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통, 사랑 등을 그리고, 그의 오페라 무대를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준용 지음 / (주)씨디가이드 발행

위험한 그림의 미술사

이 책은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시대를 앞선 그림들이 몰고 온 사회적 논쟁과 스캔들을 통해 서양미술사의 중요한 변화를 살피고 있다. 미술사를 바꾼 위험한 그림들과 화가들에 관한 일종의 미술사 다큐멘터리다.

조이한 지음 / (주)웅진닷컴 발행

도발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이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아방가르드의 문화사, 몽마르트에서 사이버 컬처까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테크놀로지와 아방가르드의 가장 도발적인 연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크 애론슨 지음 / 장석봉 옮김 / 도서출판 이후 발행

인사동 가고 싶은 날

서울에서 가장 우리의 전통이 살아 있는 인사동, 그 거리 골목골목에 위치한 가게들을 꼼꼼히 소개한 책이다. 가게 주인이 직접 고른 소중한 물건과 인사동에 관한 사연, 그리고 지인들이 말하는 인사동의 의미를 통해 인사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하우스 엮음 / 디자인하우스 발행

분단 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문학사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문학사의 주요 흐름과 쟁점, 문학을 이끌어온 동력이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기술되었다.

하정일 지음 / 소명출판 발행

「허난설헌 시 연구」 외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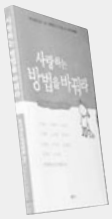
조선 당대의 여류시인 허난설헌 시의 새로운 해석 「허난설헌 시 연구」(김명인 지음)와 이 시대 문학의 경계를 넓히는 몇 가지 주제들-영상, 여성, 일상, 원점회귀, 교육에 주목해 쓴 글들을 모은 책 「한국 근대문학의 몇 가지 주제」(최혜실 지음), 김수영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학적으로 파고들어간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김명인 지음)이 출간되었다.

김명인 외 2인 지음 / 소명출판 발행

나비의 전설

2002년 제9회 이수문학상 수상작품집으로, 〈나비의 전설〉은 대상을 수상한 윤후명의 소설 제목이다. '읽는다' 는 느낌보다 '듣는다' 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문학평론가 김윤식의 평론에서 보여지듯 아름답고 애틋하고 따뜻한 유혹을 느끼기에 충분한 소설이다.

윤후명 외 6인 지음 / (주)도서출판 이수 발행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

이 책은 부모들이 존경하는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11인이 자신의 자녀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무엇인지 들려주는 수필 형식의 글모음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엮음 / 샘터 발행

축구 황제 펠레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한 청동거울 영웅전 그 세번째로, 전세계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스타 펠레의 축구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가난한 지역 출신의 흑인 축구선수에서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자리잡은 삶의 역경과 꿈, 희망이 담겨 있다.

김경우 지음 / 이명환 그림 / 청동거울 발행

느낌 있는 그림 이야기

어린이들을 위한 명화 감상서로 저자는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 그림 이야기를 들려준다. 먼저 그림 구석구석을 보이는 대로 읽고, 그 단계를 넘어 그림의 주제와 탄생의 배경까지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이주헌 지음 / 도서출판 보림 발행

마침내 불의 주인이 나타나다

'동화로 읽는 자연사 박물관' 시리즈의 마지막 3권으로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신생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고 · 중생대를 이야기한 1, 2권과 마찬가지로 아기 혜성 새별이가 시간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최창숙 지음 / 안은영 그림 / 현암사 발행

호저 찰리와 멍멍이 벨로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출간된 이 책은 어린이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호저'는 고슴도치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몸길이 70~90cm, 몸무게 25kg 정도의 포유류다.

얀빌렘 판 데 베터링 지음 / 유타 바우어 그림 / 유혜자 옮김 / 현암사 발행

오늘 재수 똥 튀겼네

이 책은 덕호의 떡볶이 내기(아이의 현실)와 아버지의 파업(어른의 현실)을 통해 현실의 비참함과 덕호의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송언 지음 / 백남원 그림 / (주)사계절출판사 발행

우리 언니

마치 엄마처럼 동생을 챙겨주며 돌봐주는 언니와 그런 언니의 보살핌이 귀찮기만 한 동생. 동생의 깜찍한 반항과 언니의 애틋한 마음으로 키워가는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다.

샬로트 졸로토 지음 / 마사 알렉산더 그림 / 김은주 옮김 / 언어세상 발행

아기 달님, 어디 숨었나?

아기 달님을 찾아 헤매던 엄마 달님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별이 되어 바다로 떨어지고, 떨어진 별들을 가지고 천진스럽게 노는 수달들과 의인화된 아기 달님이 예쁘게 그려져 있다.

바바라 헬렌 버거 글 · 그림 / 햇살과 나무꾼 옮김 / 언어세상 발행

능금나무 빵집의 톡톡 씨

이 책은 젊고 참신한 작가들이 모인 동화세상 회원들이 함께 지어 펴낸 책이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생각의 꽃씨들을 잘 자라게 도와줄 좋은 흙이 되는 아름다운 동화집이다.

김향이 외 지음 / 유영주 그림 / 엄지검지 발행

▶**우리 양악 100년** /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지음 / 현암사 발행
▶**예술과 과학** / 엘리안 스트로스베르 지음 / 을유문화사 발행
▶**교육학 용어사전** / 현종익 · 이학춘 지음 / 동남기획 발행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 폴 리쾨르 지음 / 아카넷 발행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아담 샤프 지음 / 한길사 발행
▶**조선조 무속 국행 의례 연구** / 최종성 지음 / 일지사 발행
▶**신라의 역사** / 이종욱 지음 / 김영사 발행
▶**지리산** / 임소혁 글 · 사진 / 다른우리 발행
▶**넙치** / 귄터 그라스 지음 / 김재혁 옮김 / 민음사 발행
▶**환상동화집** / 정서웅 · 윤예령 옮김 / 민음사 발행
▶**초등과학학습만화 - Why? 지구** / 이광웅 지음 / 박종관 만화 / 예림당 발행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우리 민속 이야기** / 우리누리 지음 / 김용철 그림 / 예림당 발행

※ 이 난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꾸며집니다.

새로나온음반

이정식의 0시의 재즈 - Smooth Jazz / C & L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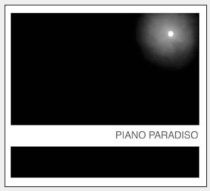
이미 올 2월에 선보였던 〈이정식의 0시의 재즈 by request〉에 이은 두번째 앨범으로 'the day' 와 'the night' 라는 2개의 테마 아래 선곡된 총 24곡의 시원하고 편안한 재즈곡들로 엮었다.
두 장의 음반을 들어보면 감상자들은 보사노바부터 시작해 펑크, 소울, 힙합, 디스코 등 현재 대중음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다양하고 친숙한 리듬들의 향연에 놀라게 될 것이다. 정통 재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우리 삶의 가까운 곳으로 재즈를 불러들여 어려운 재즈가 아닌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음악에서의 재즈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 피아니스트 서혜경 / 한국아카디아

세계적인 권위의 부조니 콩쿠르, 뮌헨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피아니스트 서혜경.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피아노 연주자로 우뚝 서 있는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발표하는 이 음반은 연주자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로운 모습과 그 동안 그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음반이라 할 수 있다.

Winter Into Spring - George Winstom / BMG

조지 윈스턴의 계절 시리즈는 가을을 필두로 1990년대의 여름으로 나아가며,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 것은 이번에 20주년을 기념으로 재발매되는 1982년의 〈Winter Into Spring〉이다. 그의 계절 연작들은 혹자에 의하여 비발디의 사계와 비교될 정도로 음악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기념할 만하다. 특히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는 계절의 한 모퉁이에 서서 그 계절의 변화를 마음으로 담아내는 성정의 울림을 표현해 내는 측면에서 그의 음악이 대자연의 변화에 의존하지만 얼마나 개인적인 울림을 토로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음반이다. 한여름 안의 겨울과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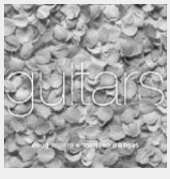


Piano Paradiso / 아이드림미디어

피아노 소곡집, 피아노 명소품집, 20세기 초절기교 소품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 피아노 소품의 모든 것을 수록한 피아노 컬렉션 앨범이 네 장의 CD로 발매되었다. 이제 막 피아노에 입문한 초보자는 물론 피아노 음악 마니아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동안 쉽게 구할 수 없었던 20세기 피아노 소품이 가득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 장의 CD 중 첫번째 CD에는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소곡이 수록되어 있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클래식 음악사에 가장 빛나는 피아노 명소품으로 구성하였다. 네번째 CD에는 20세기 현대 작곡가의 초절기교적 소품이 담겨져 있다.

Rouly & Noru의 Innocence of the Night / 아이드림미디어

〈밤의 순수〉는 두 연주자들의 창작곡들을 클라리넷 / 색소폰과 클래식 기타로 엮어낸 인상적인 연주곡집이다. 두 명의 아티스트는 추억을 연상시키는 멜로디와 하모니를 마치 공예품을 하나하나 엮어가듯 만들어가는데 이 앨범은 시간을 초월한 컬렉션 앨범이다. - 존 필리스
기타리스트 룰리와 클라리넷 / 색소폰 연주자 노루, 이들의 하모니는 어떤 듀오 연주보다도 견고한 조화로움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전해 준다.



Guitars / 아이드림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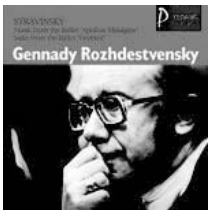
이 음반에서는 재즈 기타의 명인 덕 먼로(Doug Munro)와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마리아노 망가스(Mariano Mangas)가 듀오를 이루고 있다. 마리아노는 오늘날 스페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번 음반은 이들 각자의 스타일인 재즈와 플라멩코가 보사노바, 룸바, 스윙, 볼레로 등에 퓨전적으로 함께 녹아 있는데, 두 비르투오조 연주자들이 그들의 초절기교를 유감없이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World Passion / 아이드림 미디어

브라질,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러시아, 아프리카, 미국 인디언, 유태인의 음악까지 각국의 다양한 정서와 스타일을 지닌 20곡의 월드 뮤직을 수록한 앨범이다.
지난 1980년에 세상을 떠난 브라질 아티스트 아벨 페레이라의 〈Chirando Baizinho - 나지막이 흐르는 눈물〉, 그리스 현대사의 상징이며 음악의 상징인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영화음악 〈희랍인 조르바〉 중에서 테마 음악, 프랑스와 캐나다를 오가며 활동하는 샹송 가수 크리스틴 오티에의 〈La Valse Blanche - 하얀 왈츠〉 등이 수록되었다.

리스트 〈순례의 해〉 중 / 예당엔터테인먼트

〈순례의 해〉는 자연에 대한 친화적 감수성과 이탈리아 기행이 준 인문적, 예술적 교감을 형상화한 리스트 내면의 독백이다.
'오베르만의 골짜기' 의 음울하고 불길한 전조로부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밝힌 시인 페트라르카의 소네토 123번에 이르기까지 시인이자 신비가, 철학자로서의 리히터의 심화된 내면세계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흔치 않은 음반이다.



스트라빈스키 발레 모음곡 / 예당엔터테인먼트

19세기 말 후기 낭만주의의 주정주의와 표제음악성에 반발하여 나타난 신고전주의 최고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2개의 관현악 곡.
〈뮤즈의 신을 거느리는 아폴로〉는 그리스의 아폴로 숭배 정신을 담은 작품이고, 〈불새〉는 디아길레프의 의뢰로 쓰게 된 작품으로 무명의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걸작이다.

이태리 성악가들의 모스크바 공연 실황 / 예당엔터테인먼트

이 앨범에는 라 스칼라 가극장의 전성기 시절 활약하던 성악가 다섯 명이 러시아로 가 콘서트를 열었던 라이브가 수록되어 있다. 29세의 젊은 파바로티가 부르는 〈여자의 마음〉 〈그대의 찬 손〉 외에 〈어떤 개인 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유명 아리아가 한 장 가득하다. 이들은 남국의 로맨틱한 정열로 러시아의 찬 대지를 열띤 음악의 장으로 바꿔놓고 있다.

월튼, 슈니트케 '비올라 협주곡' / 예당엔터테인먼트

그 자신의 표현대로, '비올라만의 철학적인 소리' 를 만들어내며, 대중적 사랑과 예술적 성취를 동시에 이루어낸 거장 유리 바슈메트.
그가 연주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비올라 작품 두 곡, 월튼과 슈니트케의 비올라 협주곡을 만날 수 있는 음반이다.

바흐의 〈푸가의 기법〉/ 예당엔터테인먼트

러시아 정상의 지휘자 바르샤이. 그가 모스크바 실내악단을 지휘한 기록들은 모두 경청할 가치가 있는 보석이다.
그 중 바로크 음악에 대한 날카로운 혜안과 깊은 소양을 자랑하는 바르샤이의 바흐 〈푸가의 기법〉은 마땅히 통과해야 할 관문일 것이다. 연주 내내 시종일관하는 전아하고 유려한 음악적 흐름 속에서 작품에 대한 바르샤이의 완벽한 장악력을 느낄 수 있다.